

개작하는 문인들 작품,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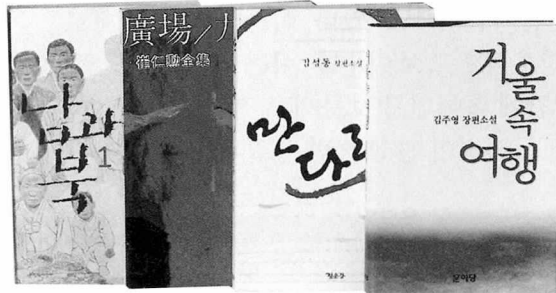
작가 개인의 자의식과 시대의 질곡에 따라 내용 달라져

최근 출판가에 이따금 개작소식이 들려온다. 40여년에 걸쳐 끊임없이 한 작품을 개작해온 경우가 있는가 하면, 자전적 소설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못해 뒤늦게 작품을 손질한 경우도 있다. 더욱이 현대사의 질곡을 건디며 변화된 시대의식을 담아낸 작품도 있어 개작에 따른 사회·역사적 의미를 되새겨보게 한다.

작품을 향한 애착으로 개작해

김성동의 《만다라》가 출간 22년 만에 전면 개작됐다. 개작판 《만다라》(깊은강)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볼 수 있다. 먼저 눈길을 끄는 건 초판본과는 180도 다른 결말이다. 과거의 작품에서 주인공 법운이 피안행 열차표를 찢고 속세로 달려가는 것으로 끝난 데 반해, 개작판은 법운이 열차표를 들고 정거장으로 걸어가는 것으로 결말짓는다. 이 대목에 대해 김성동은 “법운이 산으로 들어가 공부할 더 한 다음, 다시 속세로 나와 그 깨달음을 중생들과 더불어 나누는 것이 소설의 완결 구조에 더 부합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음은 소설의 무게중심을 등장인물의 구도적 수행에 맞춘 점이다. 새로운 결말을 이끌어내기 위해 법운의 성격에 변화를 주고자 한 부분도 눈에 띈다. 법운이 노승 지암을 만나 출가를 결심하는 자리에서 초판본은 한국전쟁 중 우익에 학살당한, 마르크스주의자였던 아버지의 내력이 나타나지만, 개작판은 그런 상황설명이 사라졌다. 대신 법운이 죽음에서 오는 마음의 고통을 고백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리고 나투다(나누어주다), 눈비음(겉꾸밈, 수식), 힘살(근육) 등 순우리말 어휘를 맛깔



스럽게 되살린 점도 개정판의 빼놓을 수 없는 매력 가운데 하나다.

김주영의 《거울 속 여행》(문이당)은 1988년 작 《고기잡이는 갈대를 꺾지 않는다》(민음사)를 전면 개작한 작품이다. 하지만 워낙 많이 고쳐서 신작이나 다름없다. 아버지의 부재와 가난 속에서 자란 두 아들의 아픈 성장기를 담은 자전적 소설이란 점에서 작가의 애착이 남달랐던 작품이다. 지은이는 “그 시절을 돌이킬 수 없다는 참담한 회한”으로 고통스러워 하지만, “다시 한번 반추해 볼 수 있는 능력과 여백이 아직도 내게 있다는 확인”작업이었다며 책 속에 개작의도를 풀어놓고 있다.

변화된 시대의식 담아내기도

최인훈의 《광장》은 ‘개작부문’ 한국기네스기록을 보유한 작품이다. 1960년 《새벽》에 발표될 당시 원고매수 6백장 분량의 중편소설이 단행본으로 출간되면서 8백장으로 늘어났다. 그후 신구문화사, 민음사, 문학과지성사 전집판 등 일곱번의 개작을 거쳤다. 단어 몇개만 고쳐도 내용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문학 텍스트란 점을 생각할 때, 40여년에 걸친 《광장》의 꾸준한 개작은 작가가 이 작품에 쏟은 열정과 사랑을 짐작케 한다.

개작 내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신

구문화사판에서 민음사판으로 바뀔 때, 한자어를 한글로 바꾸고 하나의 문장을 둘로 나누는 등 문장의 리듬감을 살렸다. 전집판에서는 삽화와 현재형어미가 자주 등장하는 점이 두드러진다. 특히 과거의 판본들과 비교할 때 전집판에서 완전히 달라진 건 갈매기의 의미 변화다. 중립국으로 향하는 이명준을 뒤쫓는 두

마리의 갈매기가 그 이전 판본에선 윤애와 은혜 곧 이명준이 사랑한 두 여인으로 나타나지만, 전집판은 은혜와 은혜가 임신중이던 딸로 표상된다. 이는 20대에 쓴 초판본과 전혀 다른 작가의 변화된 세계관을 보여주는 것으로 무엇보다 개작된 텍스트가 이데올로기적 도식성에서

벗어나 열린 구조로 거듭났다는 점을 환기시킨다.

홍성원은 1977년 한국전쟁을 소재로 한 대하소설 《남과 북(전6권)》(문학과지성사)을 지난해 개작해 펴냈는데, 냉전시대의 표현과 문장은 문장들을 대폭 손질했다. ‘보완과 개작에 대한 짧은 해명’에서 작가는 “얼어붙은 냉전체제 속에서 한국전쟁을 제대로 그리는 데 한계가 있음을 솔직하게 고백”한다며, “이제는 당국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도 유보됐던 북한 쪽 이야기를 어느 정도 편안하게 쓸 수 있는 시기”가 됐다고 말한다. 작가는 개작판에 북한 쪽 주인공을 새롭게 등장시켜 “북한 ‘로동당’이 왜 동족상잔이라는 고통스런 회생을 무릅쓰고 ‘조선 전쟁’을 일으켰는가”를 진지하게 묻고 있다.

시 분야의 개작사례는 고 은이 대표적이다. 1983년 출간된 《고은시 전집 1,2》(민음사)에서 시인은 자신의 시를 거의 개작해놓았다. 실제로 고 은은 3백여편에 이르는 초기시를 거의 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은의 초기시 개작에 대해 문학평론가 한원균은 “자신의 변화된 세계관에 대한 자기검열”과 “1980년대라는 시대적 특수성이 지나치게 개작과정에 고려”됐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옥순기자